



all ways 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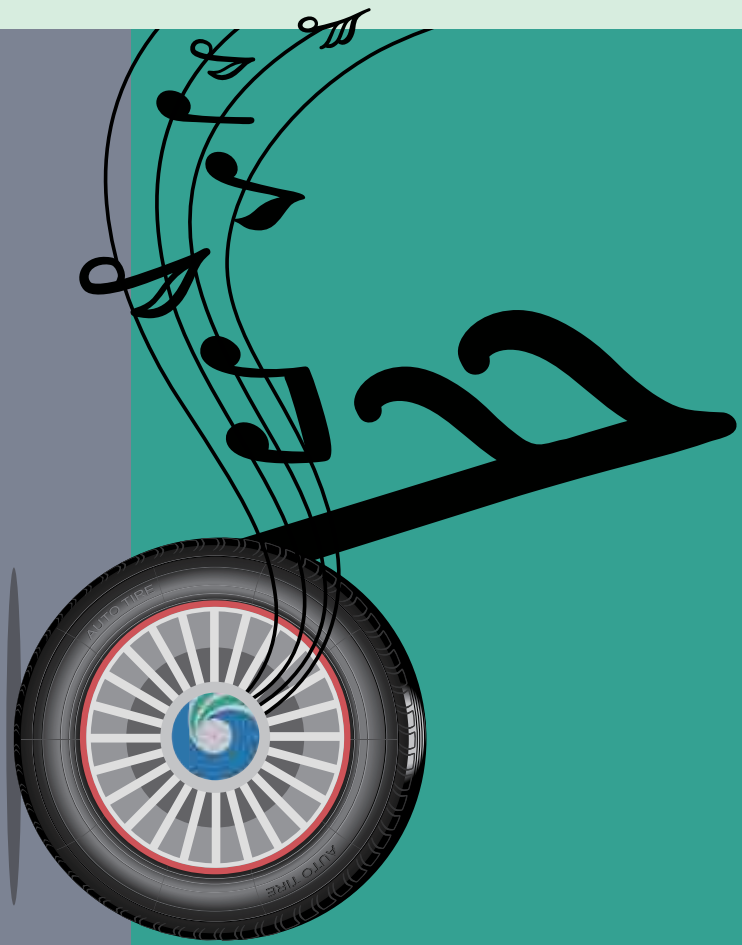
11
NOVEMBER

열한 번째 길
늦가을 소리

경인고속도로 이제, 우리의 생활입니다

50년 기다림, 경인고속도로 인천의 품으로

인천시로 관리권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이관
방음벽 사라지고 도시 단절 문제 해소
공원·녹지·실개천 등 시민 친화공간으로 재탄생





인천항
116.5×43(cm) oil on canvas 2017

영종도에서 바라본 신비로운 인천항

영종도는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20분이면 갈 수 있는 섬입니다.
이제는 섬이라기 보단 육지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시선을 바꿔 영종도에서 보는 인천항은 어느 나라 항구보다 신비롭고,
앞에 펼쳐지는 잔잔한 파도는 겹겹이 쌓인 개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문(門) 앞에 펼쳐지는 바다와 섬,
그곳에서 새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표지사진 류창현

열한 번째 길; 늦가을 소리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사데풀 씨앗을 날리는 자연해설사 ‘새 생명’)

06_늦가을 소리 - 소래습지 - 습지의 식물들 - 포구와 철교, 그리고 사람들 - 역사의 흔적 포(砲)

26_드론 찰칵, 달리 본다 소리 30_다큐 인천 병원선 ‘인천 531호’

36_화제의 인물 윤기형 감독 40_문화 캘린더 제4회 신정드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외 42_박물관 이야기

44_시정 뉴스 시민이 제안하고, 공감하는 복지사업 추진 외 48_의정 뉴스 7대 인천시의회, 민생 조례안 제정 등 입법 활동 활발 외

50_컬러링. 인천 인천대공원 52_Info Box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 안내 외

57_인천의 생물 이야기 귀뚜라미 우는 밤 생각나는 섬, 교동도 58_모닝 커피 한잔 59_몽(夢)땅 인천 골목



인천 통통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다면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홍보콘텐츠 블로그 ‘인천 에피소드&해피소드’
(blog.naver.com/happylong7)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allwaysincheon)
카카오스토리(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allways_incheon)
웨이보(www.weibo.com/incheon)

인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께서 120미추홀콜센터에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궁금할 땐 언제나 120미추홀콜센터 (032)120



희망키움통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희망키움통장(II)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사람에게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3년 만기 시 720만 원을 찾아갈 수 있어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해 모집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송도유원지에 놀러 가고 싶습니다.

송도유원지는 1963년에 개장해 1969년 국민 관광지로 지정돼 오랜 세월 사랑 받았으나, 2011년에 폐쇄되었습니다. 오는 2020년 상반기에 송도 테마파크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를 알고 싶습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 인천의 외국인은 6만1천254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인천 → 인천통계 → 주민등록 인구 → 2017년 9월 말 기준 인천광역시 인구 현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천시에 무료로 장난감을 대여 받는 곳이 있나요?

인천시는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무료 장난감 대여 서비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2개점(예술회관역점, 경인교대입구역점)과 각 군·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13개 점 등을 포함해 총 15개 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 들어가셔서 사용하기 → 오프라인 가맹점 검색 후 사용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합니다.

시민 소통



애인(愛仁)토론회

‘여유 찾은 재정으로 시민 행복 디자인’



우리 시는 지난달 25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여유 찾은 재정으로 시민 행복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제5회 애인(愛仁)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한 각계각층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는 장을 마련해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특히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 정상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애인(愛仁) 공감 콘서트’도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첫 회부터 애인(愛仁)토론회를 함께 만들어온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더불어 인천 YMCA를 공동 주최단체로 추가했다. 한편 인천시장은 이날 발제 자리를 빌어 시가 지난달부터 발표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4대 사회적 약자 친화 도시 조성’ ‘창업 및 청년 일자리 정책’ ‘지속 가능한 원도심 혁신 정책’에 이은 ‘2018 시민이 행복한 애인 정책’ 다섯 번째 시리즈를 발표했다.

문의 : 시 소통담당관 ☎ 440-2199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진짜 인천, 완전한 인천이 있다

독자 최지혜(37·계양구 봉오대로)

요즘 인천을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합니다. 국내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발전했고, 그 과정 속에서 300만 시민이란 값진 결실도 맺었으니까요. 가끔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에 가보면, ‘이곳이 정말 내가 37년 동안 살았던 인천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집 근처에 조성되고 있는 가정지구나 루원시티를 지날 때도 ‘인천은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구나’란 기대에 팬스레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인천하면 신도시’란 공식이 어느새 인천 안팎에 깊이 뿌리 박힌 것 같아서입니다. 인천이란 도시가 쌓아온 역사와 매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들이 훨씬 더 많은데 말이죠.

그런 점에서 ‘굿모닝인천’이 참 고맙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관심이 크게 닿지 않던 인천 구석구석, 특히 원도심에 얹힌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흥미롭고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인천에게 마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조금은 천천히 걸어요’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굿모닝인천’이 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조금만 속도를 늦춰 인천이란 도시가 가진 깊이와 가치를 오랫동안 매만져 주었으면 합니다. 어느 한 쪽이 아닌,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인천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굿모닝인천’. 이 한 권의 책 속에 진짜 인천, 완전한 인천이 있습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蘇
萊

우리가 알던,
잊고 있던

소.
래.

소래는 아직 건재하다. 바로 앞까지 도시가 침범했지만 곳곳하게 살아남았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왁자한 시장 바닥, 만선의 꿈을 싣고 출렁거리는 고깃배, 수인선을 달리던 꼬마기차... 우리가 여전히 찾고 기억하는 소래다. 포구에서 한 걸음 더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소금기 가득 배인 물기 어린 땅. 갯벌 그리고 수탈의 역사가 만들어낸 소금밭은 삶의 터전을 거쳐, 오늘 생명의 안식처가 되었다. 가을 한가운데, 우리가 잊고 있던 소래를 찾았다.

한때 소래 사람들의 땀이 스민 소금이 산처럼 쌓이던 창고. 지금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있다.(소래습지생태공원)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소금꽃 피던

마.
을.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고요하고 아늑하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우리가 아는 왠지
소래가 아니다. 광활한 세상에 마음을 꺼내두고 한참을 바라보다, 발걸음을 느리게
움직인다. 소슬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머릿속을 맑게 깨운다. 바람 사이에 소금기가
질게 배어 있다.
눈앞에 네모반듯한 소금밭이 수평선처럼 펼쳐진다. 소래는 소금의 고장이었다. 1907년
주안을 시작으로 남동, 군자와 함께 전국 소금 생산량의 30%를 만들어냈다. 그 안엔
쓰라린 역사가 깃들여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화약을 제조하는 원료로 쓰기 위
해 소금을 만들었다. 그 치욕의 결정체가 일제가 놓은 철길을 따라 바다 건너 섬나라
로 속절없이 흘러들어 갔다.

아픈 역사에서 시작했지만, 염전은 오랜 세월 소래 사람들을 먹여 살
린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주안과 남동 지역에 공장지대
가 들어서면서 염부들은 노동자로 떠나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소래
염전은 1996년 7월 문을 닫는다.
다행스럽게도 3년 후, 폐 염전은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다시 세상의
빛을 보았다. 적은 양이지만, 서쪽 바람과 햇살을 머금은 결정체도
새로이 빚어내기 시작했다. 오늘은 날이 흐려 소금밭을 일구는 이가
없다. 염전에 고인 바닷물에 가을 하늘이 외롭게 잠겨 있다. 그 위로
젖빛 구름이 고요히 일렁인다.

발걸음을 느리게 움직인다.
소슬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머릿속을 맑게 깨운다.
바람 사이에 소금기가 질게 배어 있다.

아픈 역사
어루만지는

자.
연.

습지 한가운데는 풍차가 돌아간다. 낮선 듯 어울리는 이 피사체 덕분에, 서쪽 끄트머리 잊
혀가던 습지는 아마추어부터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계절마다 햇살이
다르고 빛깔이 다르다. 자신감만 살짝 부여잡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누구든 ‘인생컷’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봄여름가을겨울 다 좋아요. 그중에서도 새벽빛이 부영계 밝아올 때 물 안개가 피면 참 멋
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려고요. 운 좋으면 안개가 필지도 모르죠.” 길 위에서 습지로
출사 온 하재완(65) 씨와 김진세(70) 씨를 만났다. 일흔 살의 노 작가는 평생 삶의 무게를 지
탱한 단단한 어깨에 카메라를 짊어 메고 습지를 찾는다. 오늘은 안개 대신 구름을 뷰파인더
안에 담았다. 순간순간 모습을 바꾸는 구름 또한 자연이 선사하는 근사한 예술작품이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습지를 걷고 또 걷는다. 염전을 지나 갈대밭 건너, 새들이 쉬고 있는
호숫가를 지나 다시 갈대밭으로... 생명 가득한 대자연이 아픈 역사를 덮어주고 있었다.
시린 마음에 온기가 돈다.



오늘은 날이 흐려 소금밭을 일구는 이가 없다.
염전에 고인 바닷물에 가을 하늘이 외롭게 잠겨 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감춰진

기.
억.

색감도 공기도 모든 게 한참 다른 세상, 저 멀리 들판 사이로 두 개의 붉은 벽이 시야에 들어온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허물어진 벽돌집이다. 어제와 오늘, 그 긴 시간의 간극. 허물어진 벽돌 사이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로 채워진 저 일대도 한때는 생명 넘치는 물기 어린 땅이었다. 사진작가 최병관 선생은 그때를 생생히 기억한다. “한때 저 아파트 일원까지 모두 습지였어요. 그나마 남은 땅을 공원으로 남겨 둔 건, 참으로 고마운 일이에요.” 그는 수인선 협궤열차가 하루에 세 번 오가던 산뒤마을 101번지에서 나고 자란 ‘소래의 작가’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삼대에 걸쳐 이 땅에 머무르고 있다.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물려준 땅이지만,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르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붙잡으려 사진기를 들었다. 작가가 20여 년 찍어 온, 소금기 푹 젖은 사진들을



허물어진 벽돌집 사이로 보이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한때 물기 어린 땅이었다.



‘소래의 작가’ 최병관.
그는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붙잡으려
사진기를 들었다.

눈앞에 펼쳐 보인다. 가진 것 없이 염전에 기대어 살던 소래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난다.

처음 탐욕의 결정체를 빚어내던 땅은,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 긴 세월 소래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었다. 그리고 오늘, 그네들의 땀이 스민 대지엔 꽃이 피고 새들이 찾아온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우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제 모습을 감춘다. 가을, 어둠에 젖은 습지가 정적 속으로 가라앉는다.

INFORMATION

소래습지생태공원
위치 남동구 소래로 154번 길 77(논현동)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의 ☎ 435-7076

생명, 소금 땅 비집고 피다

소래습지에는 8천 년 시간이 흙뻘 배어 있다. 하지만 땅을 메우고 갯골 폭이 좁아지면서, 이제 한 달에 두세 번 겨우 물이 들어온다. 언젠가 더 이상 바닷물이 밀려오지 않고 땅이 메마르면, 그 안에 생명도 사라질 것이다. 척박한 소금 땅을 비집고 피어난 귀한 생명을 찾아, 자연해설사 ‘새 생명’ 선생과 함께 습지를 걸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감수 국립생물자원관



소래습지는 장수천과 만수천이 만나고 바다와 맞닿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심과 가장 가까운 해안 습지로, 땅과 바다의 생태가 사이좋게 공존한다. 그 안엔 염생식물과 습지식물이 어우러져 건강한 숨결을 내뿜고 있다. “이들 식물은 게들의 좋은 서식처로 습지를 찾는 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해요. 또 오염물질로 더럽혀진 습지를 정화한답니다. 생태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학생들에게 생물을 가르치던 자연해설사 ‘새 생명’ 선생의 설명이다.

통통마디
Salicornia europaea L.

꽃말 : 순화, 영감
일본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지금도 강화도와 신안에서 대량으로 기를 정도로 귀한 몸이다. 하지만 그 옛날 염전 사람들에게는 그늘을 드리워 소금 만드는 걸 방해하는 천덕꾸러기일 뿐이었다.

회색빛 땅에 붉은빛이 스며 든다. 바람이 소슬해지면 칠면초, 해홍나물, 통통마디 등 염생식물이 습지를 붉게 물들인다. ‘칠면초’는 싹을 틔어 꽃을 피울 때까지 일곱 빛깔로 변하는데, 가을에 빛이 가장 곱다. ‘통통마디’는 식물의 마디마디가 제 이름처럼 통통하니 귀엽다. 바다의 자양분을 한껏 빨아들여 ‘짠맛 나는 풀’ 함초라고도 불린다. 잎을 떼다 베어 무니 짭조름한 바다 향이 입안 가득 번진다. “예전엔 가을이면 염생식물이 붉은 용단처럼 깔렸는데, 지금은 사람이 하도 드나들어 풀이 나지 않아요.” 이들 염생식물은 천연 미네랄이 가득한 ‘바다의 약초’로, 일본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습지가 육지화되면서 언젠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가던 길을 멈추고, 빨강게 피어난 풀잎을 들여다본다.

칠면초
Suaeda japonica Makino

꽃말 : 단심(丹心) ‘속에서 우러나는 정성스러운 마음’
가을이면 습지에 붉은 주단을 펴는 염생식물. 천연 미네랄이 가득 품은 ‘바다의 약초’이기도 하다. 일찍이 영종도에서는 칠면초 씨를 받아 콩나물처럼 싹을 틔워 먹었다.



늦가을 소리

습지의 식물들

가는 길에는 노란 꽃이 가을 햇살을 업고 피었다. “무슨 꽃인지 아세요?” 사데풀이다. 민들레같이 생겨서 그리 알고 지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노란 꽃망울과 하얀 솜털이 보송하게 달린 씨앗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이 식물은 키가 100센티미터까지 훌쩍 크고 봄이 아닌 가을 한가운데 꽃을 피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김춘수 시인의 시구가 떠오른다. 세상 그 어느 것이든 제 이름을 불러야 그 본질이 더 아름답게 빛난다. 꽃의 이름을,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가만히 되뇌어 본다.

사 데 풀

Sonchus brachyotus DC.



꽃말 : 친절, 세력, 활력
“민들레 아닌가.” 꽃을 보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자세를 낮춘다. 솜털이 보송하게 달린 씨앗은, 갯바람에 흩어져 공중 위를 떠돌다 다음 해 노란 꽃을 피울 것이다.



해 당 화

Rosa rugosa (Regel) Bth.

꽃말 : 이끄는 대로, 미인의 잠결, 온화
바닷바람과 안개의 심술에 시달리고 목이 말라도 물을 흥뻑 들일 수 없으리라. 들꽃은 사람에 의해 가치가 정해지는 온실 속 화초와 달리, 강인한 아름다움이 있다. 해당화는 꽃잎에서 장미향이 나고, 열매도 붉은색으로 예쁘다.

갈대밭 틈바구니에는 해당화가 수줍게 피었다. 신선한 바람과 깨끗한 이슬로 빛은 걸까, 곱고 예쁘기도 하다. 바닷가에서 자라는 해당화는 여름에서 초가을까지 꽃을 피운다. 용케도 찬바람 맞으며 여태껏 살아남았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기 몫을 다해 피고 지는 꽃이 기특하다.

소래습지에는 8천 년 시간이 흠뻑 배어 있다. 하지만 땅을 메우고 갯골 폭이 좁아지면서, 이제 한 달에 두세 번 겨우 물이 들어온다. 언젠가 더 이상 바닷물이 밀려오지 않고 땅이 메마르면, 그 안에 뿌리내린 생명도 사라질 것이다. 함초의 통통한 가지 사이에 숨어 있던 농게가 인기척에 놀라 커다란 집게발을 내밀며 도망간다. “자연은 아름다운 거예요.” 함께 습지를 걷던 ‘새 생명’ 선생의 말이 귓가에 아른거린다.

산 조 풀 · 갈 대

Calamagrostis epigaeos (L.) Roth · *Phragmites communis* Trin.

갈대 꽃말 : 친절, 순정, 지혜, 신의 은총, 끈기, 애정, 신의
산조풀과 갈대는 메마른 갯벌과 습지에서 자라는 벼와 여러해살이풀이다. 보통 억새와 갈대를 헛갈려 하는데, 해설사 분에 의하면 구분법이 간단하다. “물가에 사는 건 갈대, 산에 있는 건 억새. 또 잎맥에 하얀 줄이 있는 건 억새, 없는 건 갈대랍니다.”



산조풀

갯 질 경 이

Potamogeton pectinatus (Koike) Ohwi

꽃말 : 청초한 사랑
바닷가가 좋아서 뿌리내린 것은 아니다. 같은 서식지에 사는 같은 종이어도 염도가 낮은 데 사는 개체가 더 잘 자라고 번식률도 높다. 갯질경이는 습한 곳에서 주로 살지만, 건조하거나 바닷물이 잠기는 곳에서도 자란다.



늦가을 소래

포구와 철교, 그리고 사람들



희망과
삶을 노래하는

「소래포구」

시꺼먼 몸을 드러낸 갯벌, 그 옆으로 닻을 내린 채 기우뚱하니 멈춰선 고기잡이배들, 한가롭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갈매기, 지친 날개를 잠시 접고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는 철새 떼. 작은 포구를 감상하며 이제는 육교가 된 수인선 협궤열차 철길을 건너가면 활기 넘치는 어시장이 있다. 뽁뽁하게 자리 잡은 어물전에선 싱싱한 생선들이 팔딱거리고 사람들의 흥정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활기 넘치는 모습 그대로,
소래포구

인천과 시흥을 가르며 흠처럼 팬 물골. 나갔던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조업을 떠났던 고깃배가 속속 포구로 들어온다. 배가 들어온 포구는 활력이 넘쳐흐른다. 뱃고동 소리, 엔진소리, 닻 내리는 소리, 어부들의 고함소리에 이어 어물을 받으러 몰려드는 상인들의 떠드는 소리, 뛰는 소리가 뒤엉켜 선착장은 금방 시끌벅적해진다.

노란 직사각형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새우와 집게발을 위협적으로 들어 올리는 꽃게, 펄떡거리는 생선들은 단박에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챈다. 순간 선착장은 ‘물 좋은 어물’을 먼저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늦가을 소래

포구와 철교, 그리고 사람들



매일 조업하는 고된 삶도
소래를 찾는 사람들과 자식 키우는 재미가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으리라.

소래철교는 여전히 인천과 시흥을 잇는
다리로 애용된다.



“리어카, 리어카! 좀 지나가게 비키세요!” 배에서 내린 물건을 좌판에 진열할 새도 없이 우르르 사람들이 몰린다. “꽃게 킬로에 얼마예요? 이거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냥 빨리 담아 주세요.” 꽃게와 새우는 값을 흥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팔려나간다.

“일단 물건이 좋아요. 싱싱하니까 여길 오죠. 오늘도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꽃게 20kg를 샀어요.” 정도순(개봉동, 50) 씨는 오랫동안 소래를 이용한 덕분에 이젠 물때까지 알고 있다고.

인천수협공판장을 가로질러 만나는 150m 길이의 소래포구 선착장. 출어해서 그날로 잡아온 것을 선주들이 직거래로 바로 풀기 때문에 물때가 되면 소래포구는 사람 체증으로 기분 좋은 몸살을 앓는다.

포구에 기대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일제강점기 때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던 소래마을. 6·25 이후 북쪽에서 내려온 실항민들이 처음으로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했을 때만 해도 이곳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황량했다. 1960년대 초 5~6척의 돛단배로 시작된 조그만 어촌이 동력선 300여척을 가진 큰 어항으로 성장한 데는 태풍도 없고 해난사고도 거의 없는 타고난 지형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소래에 기대어 산 주민들의 노력이 컸다.

“1970년대 초에는 황토길 비포장도로에 얽매지라 물도 안 나오는 곳이었어. 물은 오봉산 끝자락에서 길어다 먹었고, 소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인 ‘물양장’도 주민들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뺨밭을 돌이나 흙으로 메우면서 직접 만든 거야.”

소래어촌계장을 2번 역임했던 전익수(64) 씨는 소래의 예전 모습을 생생히 전해준다. “인천항이 준공된 1974년 이후엔 새우잡이 어선들이 인천항 대신 소래포구를 이용하면서 그야말로 ‘새우파시’가 개설됐지. 80년대에는 어촌 TV 프로그램을 소래에서 많이 찍어갔어. 그러면서 여기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지.”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관광버스 수십여 대가 소래에 손님들을 가득 쏟아냈다는 그 시절. 2000년 전후엔 평일 1만5천 명, 주말 3만 명 정도가 소래어시장을 찾았다고 한다.



배에 가득 싣고 온 어물을 선착장으로 끌어올리는 모습

소래철교를 건너는 협궤열차(1988년)



아픈 역사 딛고
희망이 된 소래철교

매일 조업하는 고된 삶도 소래를 찾는 사람들과 자식 키우는 재미가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으리라. 뱃고동소리와 가격을 흥정하는 목소리 저편으로 소래철교가 보인다. 조업을 떠날 때, 그리고 만선이 되어 돌아오는 배들은 반드시 철교 밑을 통과해야 한다. 어민들은 멀리 철교가 보이면 집에 다다랐다는 안도감, 아내와 자식들의

늦가을 소래

포구와 철교, 그리고 사람들



소래포구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어시장이지만, 1990년대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 1991년 소래포구(왼쪽) / 2017년 소래포구(오른쪽)



기대감에 마음이 설렌다고 말한다. “철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문이고, 희망이지. 자살하려는 사람이 소래철교를 찾았다가 죽기 전에 어시장이나 한번 둘러보자 했던 사람은 절대 죽지 못한다는 말도 있어. 생각해봐. 별에 그을려서 새까만 얼굴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치열하게 사는 포구 사람들 보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안 들겠어?”

소금을 나르기 위한 일제의 수탈로였던 수인선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래철교. 철로가 놓인 사연이 실망스럽다 해도 소래철교는 소래와 월곡을 잇는 해안가 서민들의 소중한 교통수단이었다. 철교엔 폐선된 수인선의 철교 침목과 선로가 비교적 잘 남아있어 과거 협궤선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열차가 사라진 뒤에도 당시를 회상하는 많은 이들이 소래를 찾아 술 한잔 기울이며 옛 생각에 잠기는 풍경이 연출되곤 한다. 연인이 함께 손을 잡고 소래철교를 건너면 헤어지지 않는다는 전설도, 다리를 건너면서 소원을 빌 때 포구로 드나드는 배가 있으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낭만적인 이야기도 있다고. 저녁 무렵, 철교 위에서 보는 바다는 붉게 물든 낙조로 한 폭의 그림이 된다.

INFORMATION

소래하면 역시
‘새우젓’

11월, 한 해 중 소래는 이맘이 제일 바쁘다. 김장철이 시작되는 탓이다. 뭐니 뭐니 해도 ‘소래’하면 ‘새우젓’. 살림 솜씨가 노련한 주부들은 새우젓의 재료가 되는 잔 새우나 김장에 버무려 넣는 생새우를 구입하기 위해 소래포구를 찾는다. “그날 잡은 새우를 즉석에서 염장해주니까 많은 분들이 소래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1980년대부터 소래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기숙(61) 씨는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귀띔한다.

지금은 냉장시설이 발달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평토굴에 새우젓을 보관했었고, 1978년부터 2000년대 초까진 근처 광명동굴에 새우젓을 보관하기도 했다고. 광명동굴엔 연간 3천여 드림의 소래 새우젓을 보관했는데, 당시 이 정도 물량은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이 한두 번쯤은 소래 새우젓으로 김장을 담갔을 엄청난 양이었다고 한다. 생새우는 그날 잡은 걸 그날 팔기 때문에 가격이 유동적이다.

육젓 1kg 4만 원, 오젓 1만 5천 원~2만 원, 추젓 1kg 1만 5천 원, 생새우는 4kg 4~6만 원 선

가격 문의: 소래어촌계 ☎ 442-6887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소래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래의 풍경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긴 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인 포구는 아마 드물 겁니다.”

1990년대부터 조업을 했다는 고철남 어촌계장은 진흙탕 갯벌 속에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고 할 만큼 소래포구의 환경이 열악했다고 전한다. 또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엔 어민들이 일출·일몰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안가 초소에서 총탄이 날아왔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여기가 공유수면을 매립했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이라 그동안 정부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어민시설이 들어왔지, 그 전에는 이런 포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자생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조성해 나가기도 했었죠.” 소래가 어민 소득과 조업 부분에서는 활성화됐지만, 기반시설이 낙후돼 타 지역으로 떠난 어민들도 많았다고.

다행히 소래포구는 지난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연간 500만 명이 찾은 관광명소임을 고려해 2025년까지 공원과 친수공간도 개발해 수산과 관광 기능을 겸비한 수도권 대표 어항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지원하니까 기반시설도 현대화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겠죠. 어민들의 기대감이 큼니다.”



浦
砲

소래포^浦의 댕구포^砲

2017년 인천은 ‘호국보훈의 도시’임을 천명하였다. 고려 후기 몽골과의 전쟁 중에 강화도가 제2의 수도로 역할했지만, 40여 년간 항몽의 근거지였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강화도는 수도를 방어하는 보장처로, 또 서해안 지역을 포괄하는 방어진지로 기능하였다. 이렇게 나라를 수호했던 역사적 흔적은 강화도의 진보와 돈대만이 아니라 문학산성, 계양산성, 화도진, 연희진, 중심성, 논현포대, 장도포대, 월미포대 등 인천 지역 곳곳에 남아있다. 인천 이 6·25전쟁 당시 상륙작전의 현장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글 강욱업 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서해안의 전략적 방어진지 인천

..... 근대 개항기, 계속되는 이양선의 출몰과 병인·신미양요 등 두 차례에 걸친 서양함대의 침공, 그리고 1875년 운요호 포격사건은 강화도를 비롯한 인천 연안 방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해에서 도성으로 이르는 길은 강화수로를 이용하는 것과 인천 연안에 상륙하여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지형을 모르는 외국 선박의 경우 수로를 통해 통상을 요구하여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와 미국 함대가 이를 저지하려는 조선군과 강화도에서 격전을 치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1876년 일본과 체결된 강화도조약 이후에는 강화보다 인천과 부평 연안의 방비 문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이 도성으로의 접근이 강화수로부터 훨씬 수월하고 거리도 짧았던 인천, 부평로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조정에서 근심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일본 군함 운요호에 의해 영종방어영이 함락당한 이후 인천 연안을 방어할 군사력은 전무하였다.

1878년 8월 정부는 인천부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인천과 부평 연안에 진(鎭)과 포대(砲臺)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듬해 1879년 7월 두 진의 공사가 완료되어 인천의 신설 진은 화도진(花島鎭), 부평의 신설 진은 연희진(連喜鎭)이라고 명명하였고, 예하에 많은 포대를 거느리게 되었다. 포대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설치된 방어물로 경보와 척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돈대와는 달리 병력이 상주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제(諸) 진의 관아에서 포대까지의 거리는 유사 시

병력이 쉽게 투입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였다. 화도진 소속 6개의 포대도 진사(鎭舍)의 인근에 위치하여 유사시 포군(砲軍)의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현재 남동구에 소재한 장도와 호구포대(논현포대)도 이때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화도진에 있던 포군이 장도포대와 호구포대에 투입되기에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이들은 인천도호부에서 관할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도포대터

소래의 땡구포대와
호구포대

浦
砲

강화도에 축조되었던 돈대(墩臺)는 해안 돌출부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이는 해안으로 접근하는 적을 정찰하고 경보하는 경계의 기능과 공격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망권이 요구되는 돈대의 위치는 높을수록 유리하였고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해안 돌출부의 구릉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선박의 수로 통과 저지가 최대 목적인 포대는 그 위치가 적선의 눈에 띄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해안 돌출부 구릉의 저사면이나 해안 저지대에 축조되었다.

해안에서 육지가 바다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곳(串)이라 하고, 반대로 바다가 육지쪽으로 휘어 들어간 부분을 만(灣)이라 한다. 군사적으로 해안을 정찰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구조물은 대부분 곳(串)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방어 사격에 장애가 되는 자연 지형물이 없기 때문이다.



호구포대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포대는 축조 당시 호구(虎口)포대라고 명명하였다. 오봉산 기슭에 마치 호랑이가 한껏 입을 벌린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검은바위가 바로 호구암인데 이 포구를 ‘호구포’라 부른 데서 유래한다. 또한 소래포구에서 경기도 시흥시로 이어지는 소래철교의 끝 ‘땡구산’에는 장도포대(獐島砲臺)가 있다. 원래의 지명은 장도였으나 이곳에 있던 대포가 ‘대완구(大碗口)’라는 이름의 커다란 화포였고 이 대완구가 ‘땡구’가 되고, 거기서 땡구산이라는 이름도 나오게 된 것으로



장도포대



인천주권은
해양주권

1880년 인천의 개항이 기정사실화되자 일본 및 외국선박의 상륙을 저지하고 연안방비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화도진과 연희진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어 일제의 강압에 의해 1882년 6월 연희진은 혁파되고 화도진은 훈련도감으로 이속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것은 다음 해 1883년 인천 개항을 위한 전 단계로, 이 지역의 군사시설이 해체된 것이다. 인천은 개항을 전후해서 해상 방어선이었던 화도진과 연희진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지었던 부평의 중심성과 기연해방영을 지켜내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 해양주권의 상실과 국운의 침체가 동일하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스러진 소금창고의 기억

‘소래(蘇萊)’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 ‘설’이 나돈다. ‘당나라 소정방이 왔기 때문에’라는 논리가 오랫동안 회자되다가 최근에는 뜬금없이 ‘소서노(비류의 어머니)’까지 등장했다. 너무 많이 나간 듯하다. 다음엔 어떤 ‘소’ 씨가 등장할지 궁금하다. 소래는 소래산(蘇萊山)에서 따왔다. 소래산은 ‘높다’라는 순우리말 ‘수리’에서 전해졌다는 설에 보다 더 고개가 끄덕여진다.

드론 촬영 **홍승훈** 자유사진가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폐허가 된 소금 창고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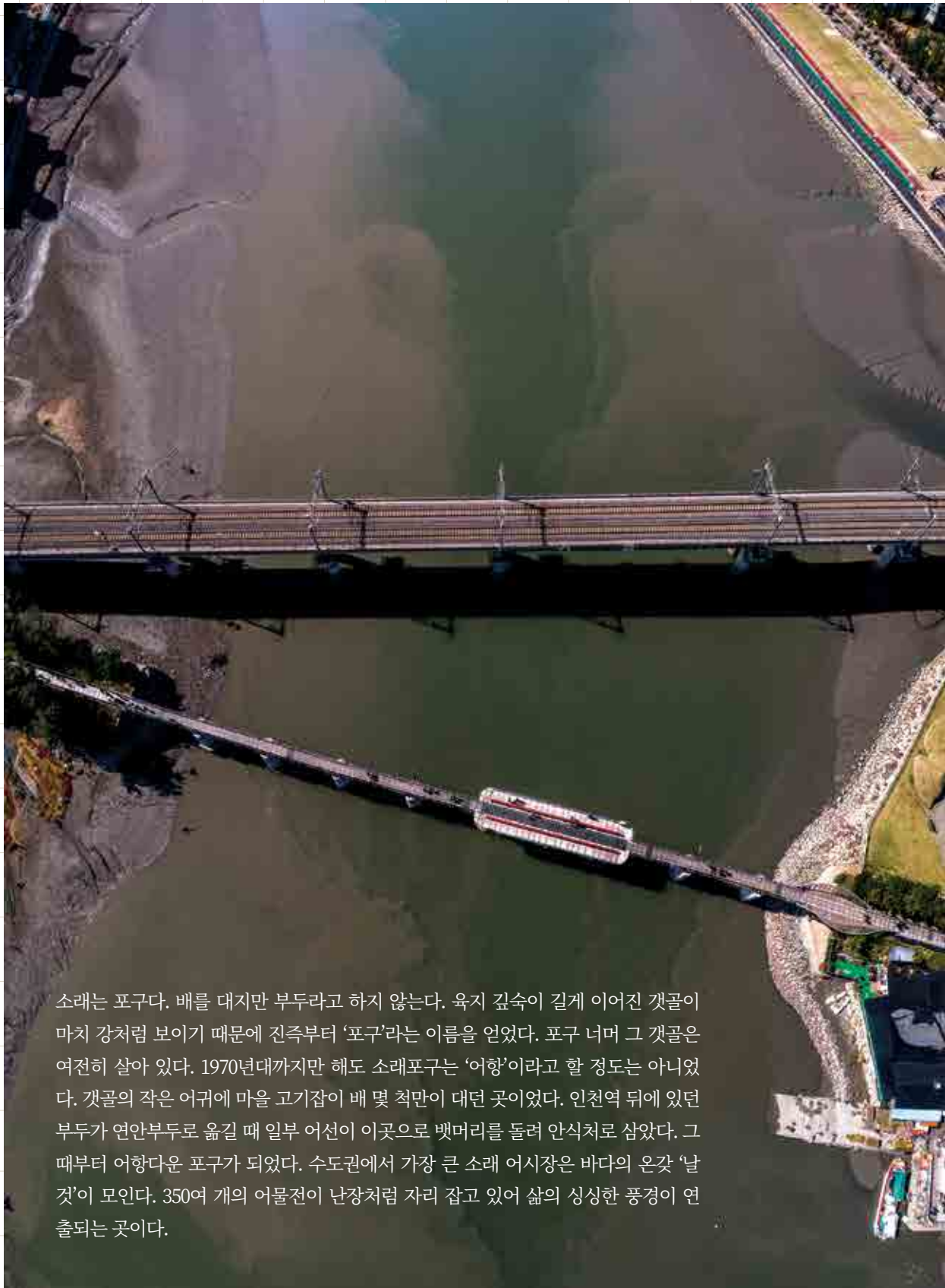


소래는 가을 타기 좋은 곳이다. 갈대와 억새의 속삭임으로 기분 좋은 스산함을 느낄 수 있다. 한걸음만 더 나가면 바다와 갯벌이 건네주는 살찐 먹거리가 지천이다. 인천을 이야기할 때 ‘짠 내’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소래는 인천의 짠 내가 여전히 진하게 배어있는 지역이다. 조선말 포대가 설치되었던 땅에 소금밭이 광활하게 만들어졌고 어항과 포구가 형성되었다. 하얀 쌀과 하얀 소금이 수인선 협궤열차에 가득 실려 이곳을 오고 갔다. 1960년대 주안과 남동 지역이 공업지대와 도시화로 개발되면서 소금밭은 하나 둘씩 사라졌고 햇볕에 검게 그을린 염부들은 공장 노동자로 그 삶을 이어갔다. 끝까지 수차(水車)를 돌리며 버텨오던 소래염전은 1996년 7월 30일 문을 닫았다.



드론 찰칵, 달리 본.다.

소래



위 복선 철도는 새롭게 개통한 수인선 철교이며 아래는 옛 소래포구 철교다.

소래는 포구다. 배를 대지만 부두라고 하지 않는다. 육지 깊숙이 길게 이어진 갯골이 마치 강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즉부터 ‘포구’라는 이름을 얻었다. 포구 너머 그 갯골은 여전히 살아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소래포구는 ‘어항’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갯골의 작은 어귀에 마을 고기잡이 배 몇 척만이 대던 곳이었다. 인천역 뒤에 있던 부두가 연안부두로 옮길 때 일부 어선이 이곳으로 뱃머리를 돌려 안식처로 삼았다. 그 때부터 어항다운 포구가 되었다. 수도권에서 가장 큰 소래 어시장은 바다의 온갖 ‘날 것’이 모인다. 350여 개의 어물전이 난장처럼 자리 잡고 있어 삶의 싱싱한 풍경이 연출되는 곳이다.



소래의 한 부분은 광활한 ‘공원’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원래 소금밭이었다. 그곳은 소래의 또 다른 풍광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염전, 갈대, 갯벌... 원시적 자연이 펼쳐진다. 한쪽에 염전학습장, 전시관, 조류탐사장 등을 복원해 놓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자연’ 그대로다. 염전의 흔적을 그나마 보여주는 것은 소금창고들이다. 이 창고조차 염부들의 체온이 사라지자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 마치 무릎이 꺾인 것처럼 한번 무너진 소금창고는 비바람에 깎이고 떨어져 나가 앙상하게 남아 있다. 이 좋은 개발 터를 그대로 볼 수 없다는 듯 사방으로 점점 아파트들이 죄어오고 있다. 우리 주변에 접근하기 쉬운 이만한 ‘자연’도 드문데 달갑지 않은 ‘염전벽해(鹽田碧海)’가 일어나고 있다.

아직도 살아 있는 갯골



염전 체험 학습장



인천 531호

마음까지 치유하는
바다 병원

한 번 출항하면 2박 3일을 섬과 바다에 머문다. 배 댈 곳이 없어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리고 잠을 청할 때도 있다. 병원선 ‘인천 531호’는 섬사람 하나하나 아픈 곳을 살뜰히 살피고 마음까지 보듬는다. TV 드라마처럼 외과 의사도 없고 수술도 못 하지만, 섬사람들은 육지 병원보다 바다 위 병원을 더 믿는다. 이른 아침, 소이작도로 향하는 ‘인천 531호’에 올랐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살려줘서 고맙다’는 인사

오전 8시, 행정선이 오가는 연안부두 선착장. 9시로 약속된 ‘인천 531호’의 출항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졌다. 오늘 여객선이 소이작도로 10시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 시간에 맞춰 섬 주민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인천 531호는 용진군에서 운영하는 111톤 급 병원선이다. 의료 시설이 없는 자월면과 덕적면, 연평면의 열 개 섬을 돌며 의료 활동을 한다. 공중보건의 세 명과 간호사 두 명, 선박을 지원하는 여섯 명의 식구가 함께 뱃길에 오른다.

병원선은 1978년 ‘비둘기호’라는 이름으로 처음 닻을 올렸다. ‘인천 531호’는 1999년 7월 첫 항해를 했다. 당시 아픈 섬사람들을 보듬는 건 오로지 바다 위 진료소뿐이었다. 황정진(59) 선장은 인생의 절반을 병원선에서 보냈다. ‘뱃놈’이 두려울 게 무엇이나며, 호기롭게 배에 오른 스물 일곱 청년은 이제 두 달 후면 정년을 맞는다. “첫 항해가 생각나. 대부도였는데, 월요일에 출발해서 닻새 후에나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지. 그때는 영종도며, 무의도며 안 간 섬이 없었어.” 그 후로 오랜 세월 마음을 풀이하며 살아왔다. 지금이야 헬기가 섬과 육지를 오가지만, 과거에는 환자가 생기면 온 세상이 잠든 밤에도 달려가야 했다.

그래도 병원선에 타길 잘했다. 바다 위를 달리다 보면, 종종 시커먼 뱃사람이 다가와 날 살려준 분이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곤 한다. “돌아보면 참 뿌듯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가 아쉬운 마음에 말끝을 흐린다. 평생 함께한 섬사람들 생각에, 노장은 30여 년 잡아온 키를 쉽게 놓지 못할 것이다.

소이작도에 닻을 내린 ‘인천 531호’



해머 닻어질까 어르신을 부축하는 변종원(58) 항해사와 이를 지켜보는 황정진(59) 선장



다큐 인천

병원선 ‘인천 531호’



병원선을 정박할 만한 시설이 없는 섬은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현실 속 병원선에서는 TV 드라마처럼 외과 의사도 없고 수술도 못 한다. 하지만 섬에서 받기 어려운 침이나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평생 허리가 굽도록 찬바람 맞으며
억척스럽게 삶을 일군 사람들.
침을 맞아도 그 효력이 하루를 못 간다.
하지만 그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일하기 위해
병원선을 찾는다.



‘오늘’ 일하기 위해
병원선을 찾다

푸른 물결 위로 소이작도의 실루엣이 보인다. 의약품을 채우고 기구를 정비하느라 병원선 식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 진다. 뱃머리가 섬에 닿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섬마을 사람이 몰려든다. 병원선에서 하는 내과, 치과, 한방 진료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건 침 치료다.
“섬에서 어디 쉽게 침을 맞을 수 있나. 온몸이 쭈시지 않은 데가 없으니, 병원선 오는 날만 기다려져.” 평생 허리가 굽도록 찬바람 맞으며 억척스럽게 삶을 일군 사람들. 침을 맞아봤자 그 효력이 하루도 못 간다. 하지만 그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일하기 위해 병원선을 찾는다. “이제 굴 따러 나갈 수 있겠어. 여기서 침 맞는 거 때문에 내 여직 버티고 살아.” “다음에 또 오세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따스한 한마디가 의료진의 손길만큼이나 마음에 큰 위안으로 다가온다.

섬 주민뿐 아니다. 섬에 상주하는 군인들도 병원선이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소이작도 해군기지의 김종식 기지대장은 어깨가 아파서 이곳을 찾았다. 24시간 섬에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파도 참는다고 했다. 의무대가 있긴 하지만 병원선에서 침을 맞고 약도 타야 몸이 낫는 것 같다. “나라 지키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오해 받는데, 허허. 여기 앉으세요. 어르신.” 병원선이 오는 날은 동네 어르신들을 모두 뵙는 날이라고 했다. 섬을 지키는 든직한 사나이가 진료를 기다리며 섬 어르신들과 두런두런 담소를 나눈다.





여전히 병원선을 기다리는 사람들



소이작도 오 남매 이장님 댁의 김효자(65) 할머니.
약은 병원선에서 주는 게 최고다.
다른 데서는 타박야 낫지가 않는다.

다정하게 동네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전정식(48) 항해사.

진료 받은 해군에게
감사의 의미로 받은 ‘일용한 양식’



지금은 세월이 좋아서 육지와 거리가가워지고, 몇 년 전 섬에 번듯한 보건 진료소도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병원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섬 주민들에게 병원 선은 삶의 일부예요. 배가 왔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면 반가워서 열 일 제치고 마중 나가세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소이작도 보건소보다 병원선이 더 익숙하세요.” 진료를 마친 어르신들을 동네로 모시러 온 김석진(42) 이장과 만났다. 약이 없어서가 아니다. 수십 년 섬을 오갔으니, 병원선 사람들은 어느 집 누구의 건강이 어떻고 무슨 약이 필요한지 다 안다. 섬사람들에게 병원선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병원선 사람에게도 섬 주민은 특별한 존재다. “모두 친구들이야. 섬에 가면 삼겹살에 소주 한상 차려놓고 ‘스탠바이’하고 기다려. 안 오면 서운해 해.” 황 선장은 섬사람들을 ‘친구’라고 스스럼없이 말한다. 치과의 권율(28) 씨는 연평도에 있다 일 년 전 병원선에 올랐다. 섬에서는 받기 어려운 치과 진료를 할 수 있어 뿌듯하고, 주민이 따듯하게 대해줘서 고맙다. 동네 어르신들이 자식 같은 그에게, 낯것을 잡아다 회를 떠 주고 물고기를 통째로 건네주기도 한다. 그 정에 이끌려 육지에 있을 때도 배 타는 날이 기다려진다.

동네 주민이 하나둘 배에서 나와 집으로 갈 채비를 한다. 병원선 사람들이 행여 넘어질까 어르신들을 부축한다. 처방받은 약봉지를 두둑이 챙긴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행복해 보인다. “감기약은 병원선에서 주는 게 최고야. 다른 데서는 타박야 낫지가 않아.” 감기만 고치는 게 아니다. 육지에서 똑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 외롭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끌어안는 ‘인천 531호’. 그들을 기다리는 또 다른 섬을 향해 다시 아름다운 항해가 시작됐다.

병원선 사람들은 어느 집 누구의 건강이 어떻고
무슨 약이 필요한지 다 안다.
육지에서 똑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 외롭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끌어안는다.

병원선 ‘인천 531호’ 사람들



화제의 인물

최초 극장 다큐 제작, 윤기형 감독



“희미해진 역사를 누군가는 기억해야죠.”

윤
기
형
/
감독

1960년대 인천에 영화 붐이 일어났다. 한국 최초의 극장인 애관극장을 중심으로 경동은 시네마거리로 불릴 만큼 극장이 많았다. 동방극장을 비롯해 문화, 미림, 오성, 인영, 인천, 인형, 키네마, 현대극장 등 인천 지역 대부분 극장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

‘최초의 극장’과 ‘경동 시네마 거리’ 등 인천의 영화 이야기는 재조명할 가치가 분명하다.

윤기형 감독은 카메라에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았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영화 역사, 다큐멘터리로 만난다

“누군가는 한번쯤 시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애관극장과 미림극장(실버극장)만 남았지만, 옛날엔 경동에 19개의 극장이 몰려 있었죠. 다큐가 있을 법도 한데, 왜 없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윤기형 감독은 인천영상위원회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인천의 극장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으려는 감독들이 있었지만 촬영 허가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중에서 애관극장의 섭외가 가장 어려웠다. 하지만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애관극장은 카메라에 꼭 담겨야만 했다. 신흥동에 사는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마다 애관극장을 찾아가 촬영 의지를 피력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시끄럽지 않고, 요란하지 않게 찍는 조건으로 촬영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햇수로 3년째. 윤 감독은 작은 캠코더 2대와 삼각대로 동인천을 누비기 시작했다. 한국 최초의 극장인 애관극장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그는 내년 초 ‘애관(愛觀)-보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영화의 꿈

그의 본업은 CF감독이다. 중앙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일찌감치 광고계에 발을 들였던 그는 2011년 다큐멘터리 ‘고양이춤’으로 이름을 알렸다. 언젠가는 극영화를 해야겠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 꿈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연히 도서관에서 접어든 이용한 작가의 ‘안녕 고양이는 고마웠어요’라는 책에 빠져 들었고, 영화를 만들겠다는 꿈이 다시 떠올랐다고. 그렇게 시작된 그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 ‘고양이춤’은 영화제 출품에 이어 극장 개봉까지 하게 되었다.

“다큐멘터리는 자유로워요. 광고는 광고주의 뚜렷한 요구와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하지만, 다큐는 찍을수록 새로워진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틈틈이 카메라를 들고 관심 있는 것을 찍던 취미는 ‘애관’이라는 또 다른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했다.

윤 감독은 송현동에서 자랐다. 인천에서 줄곧 살던 그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이 가까운 서울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 서울에서 인천을 오간다. “학창시절엔 현대극장을 많이 다녔어요. 애관극장은 고급 극장이었는데, 학교에서 단체관람으로 자주 왔었습니다. ‘007시리즈’도 거의 다 애관극장에서 봤죠.”

다큐멘터리 고양이춤 포스터



화제의 인물

최초 극장 다큐 제작, 윤기형 감독

1956년
동방극장



1957년
애관극장



1960년대 초
미림극장



1964년
애관극장



1970년대
오성극장



1988년
현대극장

애관극장에서 시작된
‘시네마천국’

애관극장은 1895년 부산 출신 부호 정치국이라는 사람이 세운 ‘협률사’가 그 시초다. ‘축항사’라는 이름을 거쳐 1926년에 ‘애관극장’으로 바뀌었다. “애관은 본래 애관(愛館)이었는데, ‘보는 것을 사랑 한다’는 애관(愛觀)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뜻이 극장과 근사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 제목을 그대로 옮겨 쓰게 됐습니다.” 애관은 영화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연주회장으로도 명성이 자자했다. 20세기 최정상급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의 피아노연주회가 열리기도 했고, 이미지, 나훈아 리사이틀이 있는 날이면 몰려드는 관람객들로 인해 사고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애관은 연극이나 영화만 상영하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레슬링대회, 권투대회도 열리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도 각광 받았던 복합 문화공간이었죠.” 또 애관극장이 위치한 인천 경동거리는 그야말로 ‘시네마천국’이었다. 미림, 오성, 키네마, 동방, 인영, 동인천, 문화, 인천극장 등 인천의 주요 극장들이 모두 이곳에 위치했었다. 현재 애관극장은 1926년 당시의 모습은 아니다. 한국전쟁 때 화재로 손실되고, 1960년 개보수를 마치고 400석 규모의 극장으로 재개관한 데 이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2004년 전면 개보수해 5개 상영관을 갖춘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바뀌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을 찾아서

윤 감독은 다큐를 찍으면서 안타까웠다. 극장이 최초로 생긴 도시가 인천임에도, 당시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건물이나 기록 등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장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생생하게 기록해나갔다. “노란 샤쓰의 사나이”를 부른 한명숙 씨의 데뷔 무대가 애관극장이었습니다. 영화배우 전무송 씨는 잠깐 동안이지만, 애관극장에서 간판 그리는 일을 하셨답니다. 소래에서 태어난 연극인 박정자 선생님은 어릴 때 애관극장에서 본 ‘처용의 노래’를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20여 년 역사를 지닌 국내 최초의 극장.
애관극장은 우리 극장사에서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과제다.



현재는 공영 주차장으로 바뀌었지만, 동방극장에서는 대동신문 지사장이자 건설영화사 사장인 최철(최불암의 부친) 씨가 제작한 인천 최초의 극영화 ‘수우(愁雨)’의 시사회가 열렸다. 시사회 준비 중 과로로 눈을 감은 최철 씨의 영정을 그의 아내와 8살 난 아들 최불암 씨가 들고 시사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또 최불암 씨의 어머니는 당시 동방극장 지하에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문인들이 자주 모였던 ‘등대’라는 음악다방을 운영하기도 했단다.

120여 년 역사를 지닌 국내 최초의 극장. 이제 경동을 지키고 있는 극장은 애관극장밖에 없다. 애관극장은 우리 극장사에서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과제다. 그것은 국내 최초의 극장에 보내는 감사와 응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윤기형 감독은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나선다.

※인천의 극장 사진이나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의 제보를 바랍니다.(ykhpd@naver.com)

CULTURE
CALENDAR

11月

01.

제4회 신정드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438-6040

스테이지149
어린이 명작 무대2 ‘강아지똥’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30분
전석 2만 원
☎ 1588-2341
* 11월 1일~3일 오전 10시 30분

02.

제34회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초대
☎ 885-3611

04.

2017 윤문식 마당놀이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6시
R석 5만5천 원/S석 4만4천 원
☎ 1522-2342

인천남구시민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초대
☎ 880-4640

청소년 오케스트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찌리재홀
오후 4시
전석 무료
☎ 760-3520

05.

기차로 떠나는 음악여행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1만 원
☎ 422-2426

드림색소폰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720-9392

07.

인천시립합창단
청소년 문화체험 마당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무료
☎ 438-7773

교과서 마술여행 ‘춤추는 마술사’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50분
전석 2만 원
☎ 580-1135
*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
11월 10일 오전 9시 30분·10시 50분

09.

제2회 부평시민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504-5930

10.

보통사람 그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무료
☎ 472-6419

인천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 ‘만찬·진, 오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010-3266-5115
* 11월 11일 오후 5시



11.

제8회 브릴란테 듀오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무료
☎ 010-8909-5129

영화 콘서트 ‘설국열차’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후 3시
무료
☎ 460-0560

12.

2017 인천국악관현악단
미추홀의 풍류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무료
☎ 875-4644

14.

제21회 인천여성가족재단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초대
☎ 511-3141

15.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전석 초대
☎ 883-3963

2017 커피콘서트IX 소리꾼 이승희
‘판소리-여보세요’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 원
☎ 1588-2341



물체놀이극 평강공주와 온달바보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 원
☎ 505-5995

2017 예술영재교육원 수료 발표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찌리재홀
오후 2시
무료
☎ 760-3520

16.

제50회 인천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초대
☎ 866-2004

17.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 내한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5만 원/S석 3만 원/A석 2만 원
☎ 1588-2341



18.

싱어롱콘서트 뮤지컬 ‘무지개물고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전석 2만5천 원
☎ 1544-3901
* 11월 19일 오전 11시·오후 2시·4시

클래식 시대 바로크 II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5시
전석 5천 원
☎ 505-5995

달달한 콘서트
‘박기영, 홍지민, 루이스초이’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후 7시
R석 4만 원/S석 3만5천 원/
A석 2만5천 원
☎ 460-0560

상상놀이극 ‘애들이 같이 놀자’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1시·3시
전석 2만 원
☎ 580-1166

19.

2017 윤종신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VIP석 12만1천 원/R석 11만 원/
S석 8만8천 원
☎ 1566-6551

20.

익스트림 퍼포먼스 ‘쇼 킥’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9시 30분·10시 50분
전석 2만 원
☎ 580-1113
* 11월 20일~
25일 9시 30분
·10시 50분(평일)
/오후 2시(주말)



21.

2017 선광문화재단 송년음악회
국악 한마당 ‘남상일 100분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초대
☎ 773-1177

성산호대학원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초대
☎ 421-4525

22.

인천여자중학교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전석 무료
☎ 629-8303

23.

인천시립합창단
‘고3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무료
☎ 438-7773

24.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68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



박수아 해금 독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무료
☎ 010-2470-0198

조선, 르네상스를 꽃 피우다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5천 원
☎ 505-5995

25.

크리스마스 칸타타 2017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0만 원/R석 8만 원/
S석 6만 원
☎ 070-7538-5303

미추홀시민오케스트라
12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833-2080
* 11월 26일 오후 3시 30분·7시

28.

인천YMCA 여성합창단
제19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무료
☎ 431-8161

여성사회교육 30년 페스티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전석 무료
☎ 440-2862

29.

마티케 콘서트 더울의
‘The memory traces, 흔적’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1시
전석 1천 원
☎ 460-0560

감성 데이트 콘서트
가수 재훈 ‘즐길 콘서트’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580-1166



30.

제2회 인천시 어린이 합창대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무료
☎ 875-7010

이은주의 춤 그 스무번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835-8621

이달의 展

2017년 제53회 인천광역시 전국 공모 미술대전
11월 13일까지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전시실

제35회 전국제물포사진대전
11월 14일~20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30회 인천사진연합전
11월 14일~20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청소년(수험생)을 위한 ‘디지털 서양 미술사전’
11월 15일~12월 17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2017년 인천 메세나 국제 아트페어
11월 21일~27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전시실

2017 인천예술대전
제18회 ‘인천광역시 미술전람회 및 초대작가전’
11월 28일~12월 4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전시실

최원숙, 나의 살던 고향은
11월 2일~14일 / 인천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제5회 연화회전
11월 2일~14일 / 인천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2회 연필스케치 동아리 회원전
11월 17일~29일 / 인천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윤설희, 공간으로부터
11월 17일~29일 / 인천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굿바이 수능! 홀가분콘서트 ‘헤이즈 x 최엘비’
11월 29일 / 인천시평생학습관 미추홀

국립현대미술관전 ‘공감&치유’
11월 3일~25일 /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최원숙작품_천향국색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기획전시실

인천시립박물관에 아주 특별한 전시실이 하나 있다.

가로 2m, 세로 3m의 벽면은 몇 점의 그림만으로도 빼곡하고, 2평 조금 넘는 공간은 성인 다섯 명만 서 있어도 답답할 정도다. 그래서 이름도 ‘작은전시실’이다.

글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부장 사진 인천시립박물관

이 자그마한 공간은 박물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2006년 탄생했다. 기존 벽면과 증축 부분 사이에 아주 작은 틈새 공간이 생기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던 차에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두 평 조금 넘는 공간에 적합한 시설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관람객이 이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실’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마우스와 키보드가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하드디스크 등 PC 부속품까지도 난당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위치가 문제였다. 결국 채 3년이 되기 전에 문을 닫고 말았다.

그 후 몇 년간 방치되던 중 이곳을 전시실로 꾸미자는 의견이 나왔다. 평소 박물관에서 보기 힘든 색다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전시 기획이 별로 없는 공무원 연구원이나 신규 학예사들의 전시 실습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았다. 간단한 시설공사를 마무리 짓고 2010년 2월 첫 번째 작은 전시 ‘사람+情’전을 개최했다. 2개월 전 타계한 이경성 초대관장의 ‘사람’을 주제로 한 연작을 전시했다. 공간의 제약으로 많은 작품을 전시할 수 없어 그해 8월 ‘사람+사람’전을 이어서 개막했다. 프로 화가가 아닌 탓에 거친 터치와 다듬어지지 않은 구성의 작품들

이었지만, 박물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현대 미술 전시였기에 관람객의 호응이 높았다.

그로부터 ‘작은전시실’에서는 실험성 높은 전시가 이어졌다. 체험 교육의 성과물을 한데 모아 전시했던 ‘뮤지엄 콜라보’전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전시였고, 바다 건너 일본 키타큐슈시립대학 학생들은 한국과 일본의 국수 문화를 비교한 ‘후루룩 국수, 스스로 소바’전을 기획하기도 했다. 또, 박물관 소식지 ‘박물관풍경’의 표지 사진으로 작업했지만, 정작 수록되지 못한 B컷을 모은 ‘Scene B’전시와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천의 모습을 전시로 풀어낸 ‘언젠가 보았던 날들-인텔리겐차의 눈으로 본 개항장’전 등 기존 박물관에서 보여준 전시 내용과 형식을 파괴한 전시가 이어졌다.

작은전시실. 크기로 보자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기획 전시실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규모가 작다고 내용마저 작을 순 없다. 작은 공간을 채운 콘텐츠가 갖는 실험 정신은 100평 넘는 대형 전시장에서 펼쳐지는 블록버스터 전시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작은전시실’에 담긴 다양한 실험 정신은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3. 2012년 작은 전시 ‘Scene B’전
4. 2016년 키타큐슈시립대학 교류전 ‘후루룩 국수, 스스로 소바’
5. 2017년 작은 전시 ‘인천 백미’



인천 백미(白米)

일시 : 2017년 9월 26일(화) ~ 2018년 2월 4일(일)
장소 : 인천시립박물관 작은전시실
문의 : ☎ 440-6734

일제강점기 인천은 조선 제일의 ‘쌀’의 도시라 불렸다. 경기 내륙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미곡이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에 쌀을 원료로 하는 양조업과 쌀을 가공하는 정미업이 발달했던 이유도 여기에도 있다. 한편 미곡의 선물시장인 미두취인소가 설립되어 이를 통해 이익을 남기려는 미두꾼들로 넘쳐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미두취인소와 정미소, 양조장은 자본과 노동력 수탈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쳤지만 역설적으로 당시 인천 경제의 활력소가 되기도 했다. 이 전시는 일제강점기 쌀과 관련된 인천 사회의 명과 암을 살펴 당시의 시대상을 재조명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전시다.



1. 작은전시실로 꾸미기 전 정보검색실
2. 첫 번째 작은 전시 ‘사람+情’전

NEWS BRIEF



시민이 제안하고, 공감하는 복지사업 추진



우리 시는 시민이 제안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시는 지난 10월 24일 시청 중앙홀에서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 공감 복지 오디션’을 개최하고, ‘소아 환아복 캐릭터 제작 사업’을 비롯한 5개 복지 사업을 우수 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날 오디션은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끌어올리고, 인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감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달간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총 142건이 접수돼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11건의 복지사업 아이디어가 이날 본선 오디션에 진출했다. 전문 심사단 12명과 시민으로 구성된 청중 평가단 150명의 최종

평가 결과, 어린이 입원 환자의 환자복에 캐릭터를 넣어 배포하는 ‘소아 환아복 캐릭터 제작 사업’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최 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 사업’ ‘다문화 가정 영유아 전담 보육실(무지개반) 운영’ ‘유아아동 전용 휠체어 대여 사업’ ‘저소득층 대상 공공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 확대 사업’도 우수 사업으로 뽑혔다. 이날 선정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내년 공감 복지사업행복 사업으로 관련 예산을 반영해 특수 시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시 공감복지과 ☎ 440-3463

인천 ‘4대 약자 친화도시’ 조성

우리 시는 노인·여성·장애인·아동을 위한 ‘4대 약자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 치매 전문 종합 센터’를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또 시립 장례식장도 내년 인천가족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선다. 아울러 출산 축하금은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중증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고, 저소득층의 암 치료를 지원하는 ‘인천 손은 약손’ 프로젝트 지원 대상도 6대 암에서 전 암 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의 : 시 정책기획관실 ☎ 440-2382

부평 은광, 관광명소로 개발

우리 시는 폐광된 ‘부평 은광’을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부평구 부평동 산 46 일대 폐광을 지역의 문화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부평 은광은 한때 전국 은(銀)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곳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광산으로 활용됐으며, 이후 영풍공업 부평광업소가 1967년부터 지하 50~370m 규모의 갱도를 뚫고 채광 작업을 했으나 1987년 말 폐광됐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440-4012

심장 질환 환자 골든타임, 모범택시 기사가 지킨다



인천 지역 모범택시 운전기사들이 심장 질환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구급 봉사 대원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 10월 16일 인천 모범택시 운전기사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한 기사 구급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구급 봉사단으로 선정된 모범택시 운전기사들은 앞으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목격할 경우,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 440-2733

영종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영예

영종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7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2017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병영 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등 5개 관종 2천449개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영종도서관은 영종 지역의 변화사와 역사를 기록, 보존, 수집하는 사업인 ‘온고지신(溫故知新)’을 통해 다양한 정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민 자율 도서 나눔 코너 ‘책다릿돌’ 운영과 정보 소외 계층(시각장애인) 및 어린이 대상의 ‘책소리책 서비스’를 실시해,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수혜 격차해소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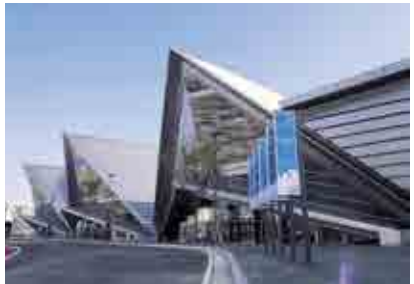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440-3972

OECD 세계 포럼 유치 성공

세계 35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대 국제 회의가 내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우리시가 ‘2018년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 포럼’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OECD 세계 포럼은 기존 국가 발전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의 한계를 인식해 경제, 사회,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국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방법론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로, 행사에는 각 국가의 전·현직 대통령·장관 등 최고 위급 정책 결정자를 비롯해 국제기구 대표, 다국

적기업 최고경영자 등 100개국 2천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 시 마이스산업과 ☎ 440-1512



인도 서벵골주와 교류 기대



우리 시가 인도 서벵골주와 경제 분야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장은 지난 10월 24일 시청에서 키쇼르(S. Kishore) 인도 서벵골주 산업통상기업부 수석장관과 현지 기업인을 포함한 서벵골주 방한단 10명을 만났다. 인도 서벵골주는 인구 규모가 1억 명이고, 주도(州都)는 콜카타시다. 콜카타시는 인도 북동부 지역의 상업·금융 중심지로, 2007년 인천시의 자매도시가 됐다.

문의 : 시 국제협력담당관실 ☎ 440-3203

인천시, ‘문화 오아시스’ 사업 추진

우리 시가 도심 속 유휴 공간을 문화 시설로 조성하는 ‘문화 오아시스’ 사업을 벌인다. 시는 버려진 창고, 다리 밑, 폐공장, 관공서 등 시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 시설 1천 개를 2022년까지 확보할 방

송도~여의도·잠실 노선 광역 급행 버스 운행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여의도·잠실 간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송도~여의도(M6635), 송도~잠실(M6336) 등 2개의 M버스 노선을 개통했다. M버스 개통으로 송도와 여의도 간 운행 시간이 기존 1시간 43분에서 1시간 8분으로 35분, 송도와 잠실역 노선도 기존 2시간 6분보다 40분가량 각각 단축됐다.

문의 : 시 버스정책과 ☎ 440-3983



침이다. 시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 1월 시민 공모를 거쳐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2

민아와 리듬파워
‘인천 알린다!’

인천 출신 가수 걸스데이 민아와 힙합 그룹 리듬파워가 최근 인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걸스데이 민아는 지난 9월 27일 위촉장을 받고 인천시 홍보대사로 임명돼 앞으로 2년 동안 시정 홍보용 영상 제작 등 인천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쇼미더머니6 우승으로 유명해진 행주가 소속된 힙합그룹 리듬파워는 지난 10월 14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시민의 날’ 행사에서 인천시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문의 : 시 대변인실 ☎ 440-3058



중국 교류 넓히는
‘인차이나포럼’ 개최

우리 시의 한중 학술·비즈니스 교류 행사인 ‘2017 인차이나포럼’이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 까지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비롯해 기업인·교수 등 중국 측 인사 250명과 한국 측 250명 등 약 500명이 참석했으며, 한중 우호 협력 증진과 경제 협력을 주제로 학술 콘퍼런스가 6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또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위해 한·중 기업 1대1 수출 상담회, 인천 투자 유치 현장 설명회, 인천 뷰티 기업 방문, 인천 관광 설명회도 열렸다. 한편 시는 중국 교류의 전진기지인 인천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작년 6월 민·관·산·학 상설 협의체인 ‘인차이나포럼(ICF)’을 발족, 다양한 교류 사업을 벌여왔다.

문의 : 시 중국협력담당관실 ☎ 458-7292

원도심에 1조 들여 주거 환경 바꾼다

우리 시는 5년간 1조 원을 들여 인천 인구 76%가 거주하는 원도심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12가지로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를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 대폭적인 공영주차장 확충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 정책 추진,

이달부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

우리 시는 취약 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2017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11월부터 시행한다. 또 예년에는 12월부터 4월까지 지원 사업이 시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취약 계층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1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 지원 금액도 1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1천 원 늘어난 8만4천 원, 2인 가구는 4천 원 증가한 10만8천 원, 3인 이상 가구는 5천 원 인상된 12만1천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내년 1월까지 각 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 시 에너지정책과 ☎ 440-4343

인천지하철 2호선, 1편성 4량 추진



우리 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2025년까지 전동차 86량을 추가 도입, 1편성 2량 운행 체계를 1편성 4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차량 구매 비용만 약 2천107억 원이다. 시는 우선 2020년까지 약 460억 원을 들여 전동차 12량을 추가 도입해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하철 2호선은 개통 390일 만인 올해 8월 23일 누적 승객 5천만 명을 돌파했다. 1편성 2량으로 움직이는 ‘꼬마열차’ 2호선의 지난달 하루 평균 승객은 14만8천 명이다.

문의 : 시 철도과 ☎ 440-3914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도시 재생 뉴딜 정책 추진, 시민과 함께 원도심 균형 발전 계획 수립, 주거 불안 없는 안정적 주거 공간 제공 등이다. 또 산업단지 재생으로 경쟁력 강화와 해양 자원과 역사 문화 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경제 거점 조성 등도 포함됐다.

문의 : 시 도시재생과 ☎ 440-4502

인천 출신 6·25 참전 유공자 명비 제작



인천시 6·25 참전 유공자 1만9천334명의 이름을 새긴 명비 제막식이 지난 10월 11일 수봉공원 인천지구 전적비 앞에서 열렸다. 인천 참전 유공자 명비는 가로 2.4m, 세로 2m 크기의 비석 4개로 전국의 6·25 명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명비에는 인천에서 거주하다 참전한 육군 1만 6천 명과 해군, 해병대, 공군, 경찰 등 모두 1만9천 명의 이름이 새겨 있다.

문의 : 시 대변인실 ☎ 440-3069

영구임대주택 ‘1만 호 프로젝트’
첫 입주 시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인천시 ‘우리집 1만 호 공급 프로젝트’ 첫 번째 입주식이 중구 인현동에서 지난 10월 26일 열렸다. 인현동 우리집은 지상 6층, 연면적 1천200㎡ 규모로, 사업비 20억2천만 원을 투입해 28채로 구성됐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를 갖췄으며 2층에는 250㎡ 규모 경로당이 마련됐다.

시는 인천형 영구 임대 주택으로 ‘우리집 1만 호 공급 프로젝트’를 2026년까지 추진하며, 내년에 1천73채를 공급한다.

문의 : 시 주거환경과 ☎ 440-3443

IMAGE
NEWS

공자 가라사대~

‘인(仁)’을 통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라

한자 인(仁)은 #인(人)과 이(二)의 결합
#사람 사이의 친함(親)을 의미

애인(愛仁)은
애인(愛人)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중심인 도시
인천의 비전이 담긴 #애인(愛仁) 철학

오늘의 주인공은
애인(愛仁) 철학!

인천 발전의 원동력은 #인천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
인(仁)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살기 좋은 인천

300만 시민 모두
애인(愛仁)합시다~

인천시, #애인(愛仁) 정책 1·2 발표
애인(愛仁) 정책으로 #인천 시민 행복 체감 지수 업업!

COUNCIL NEWS



7대 인천시의회, 민생 조례안 제정 등 입법 활동 활발



인천시의회는 2014년 7월 1일 출범한 제7대 시의회가 민생 현장을 살피고 시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밝혔다. 제7대 시의회는 지난 3년간(제216회~242회) 총 1천 건의 안건을 접수해 이중 971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481건, 동의·승인안 147건, 건의·결의안 30건을 각각 처리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이나 지역 발전의 대안을 수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결산안 35건, 감사·조사 25건을 처리하면서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지

난 제5대 의회부터 제7대 의회까지 연평균 의안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대 의회 270건, 6대 의회 291건, 7대 의회 333건으로 7대 의회는 5대 의회에 비해 23% 증가했고 6대 의회에 비해서는 14% 증가했다. 또한 제7대 접수 조례안 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243 건)이 집행부(시장, 교육감)가 제출한 조례안(258 건)에 못지않게 접수돼 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갈원영 의장은 “이는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려는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노동 정책의 방향 및 과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정부의 노동 정책과 인천시 노동 정책의 방향 및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문화예술회관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의 ‘현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에 대해, 인천대학교 옥우석 교수는 ‘인천시 노동 정책의 방향 및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회는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 서울여성병원과 업무 협약

인천시의회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는 지난 10월 20일 아인의료재단 서울여성병원을 방문해 저출산 문제 해결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는 대학교 및 관공서 등 23개 기관 및 단체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산부인과 전문 병원으로는 서울여성병원이 첫 업무 협약 의료기관이다. 한편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 대표 박영애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진행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더 많은 기관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박병만(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홍준호(인천시 일자리정책과장), 김선미(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과장), 서봉만(인천발전연구원 박사), 오인상(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부의장), 이진숙(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정책교육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대표단 인천시의회 방문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대표단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이

번 방문은 제53회 인천 시민의 날을 맞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호 친선 국제 교류로, 대표단은 경제자유구역청 내 IFEZ 홍보관과 스마트 시티 운영 센터를 둘러보고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제갈원영 의장은 “상호 우호 교류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세계적인 환경 모델 도시로 유명한 기타큐슈시와 환경 분야에서 동반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강호 부의장은 “기타큐슈시의 에코 프로젝트는 일본 최대의 중화학 공

업 도시에서 환경 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환경 정책”이라며 “인천시도 기타큐슈시처럼 새로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중화학 공업 도시로 발전한 기타큐슈시는 산업 도시로서 심각한 공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관·민이 연계한 에코타운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2008년에는 국가로부터 환경 모델 도시로 지정받았다. 인천시와는 1988년 12월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은봉초·영선초, 시의회 의정교실 체험



은봉초등학교·영선초등학교 학생들이 인천시의회를 찾아 의회 민주주의를 체험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22일 남동구 논현1동에 있는 은봉초 학생 33명이 제169회 청소년 의정 교실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발표력을 높이는 스피치 특강을 듣고, 모의 의회를 열어 안건 상정부터 질의 답변, 찬반 토론 후 표결까지의 의결 과정을 경험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황흥구 의원은 “민주주의 체험을 통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고 사회 발전을 이끄는 인물이 돼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지난 9월 27일 열린 제170회 청소년 의정 교실에는 부평구 삼산2동에 자리한 영선초 학생 28명이 참가했다. 영선초 학생들도 모의의회를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례안 등 2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 발언에 나서며 토론을 벌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전기 버스 생산 업체 시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과 22일 이틀 간 국내 전기 버스 생산 업체를 방문 전기 버스 도입 추진을 검토했다. 지난 7월 시 집행부 관계자와 인근 전기 버스 운행 업체 방문에 이어 이번에 국내 전기 버스 생산 업체를 방문했으며, 비회기 내 국외 생산 업체까지도 방문할 계획으로 전기 버스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전기 버스 도입 사업은 환경부의 보급 지원과 국토교통부의 저상 버스 보조금 사업이나 사용되는 충전기의 수명과 충전설비 등 인프라 조성이 도입의 핵심이 되는 사업이다. 1천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전기 버스의 도입은 시급한 과제로, 시는 내년도 공영 운행 노선에 교체 버스 5대를 우선 도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 ☎ 440-6137~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여러분만의 빛깔로
인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세요!

낭만하면 가을. 가을하면 단풍.
단풍하면 인천대공원.
올 가을도 인천대공원은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는 방법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브랜드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2)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기간 : 2017년 11월 20일까지 / 문의 : ☎ 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굿모닝인천’ 10월호
컬러링 인천 당첨자입니다.



배연아 남구 도화2동



장이기 남구 용정공원로



조미화 연수구 해돋이로



양미순 계양구 용종로



박수정 남동구 인수북로



홍성수 남동구 도림로



장순자 중구 도원로

보고싶다 ‘굿모닝인천’ 듣고싶다 ‘시민의 목소리’

1994년부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온 ‘진짜 인천, 진솔한 삶의 보고(寶庫)’
‘굿모닝인천’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독자 설문 조사

귀하의 성별과 연령을 표기해주세요.

성별 : (남 / 여) 연령 : (세)

Q1. ‘굿모닝인천’을 접해 본 경로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우편 배송
- 2)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 3) 학교, 도서관 등 교육기관
- 4) 지하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
- 5) 웹진/인터넷 서점 등 온라인 매체
- 6) 기타()

Q2. ‘굿모닝인천’은 다음 중 어떤 성격의
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인천의 도시 정체성 및 가치 홍보 매체
- 2) 시민 대상 시 주요 정책 공유 매체
- 3) 시민 대상 시정 활동 홍보 매체
- 4) 시민 대상 시정 성과 전파 매체
- 5) 문화, 생활, 관광 등 정보 제공 매체

Q3. ‘굿모닝인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
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대체로 만족한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Q4.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
- 2) 인천 시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 3)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 4) 기타()

Q5. ‘굿모닝인천’을 접한 후 인천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 1) 매우 좋아졌다
- 2) 대체로 좋아졌다
- 3) 특별한 변화가 없다
- 4) 대체로 안 좋아졌다
- 5) 매우 안 좋아졌다

Q6. ‘굿모닝인천’ 발행 형태는 오프라인(종이
책)과 온라인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 1) 오프라인(종이책)
- 2) 온라인(이북, 웹진)
- 3) 오프라인(종이책) 중심 온라인(이북, 웹진) 동시 발행
- 4) 온라인(이북, 웹진) 중심 오프라인(종이책) 동시 발행

Q7. 문항 Q6의 답변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Q8. 향후 ‘굿모닝인천’에서 추가/보강되었
으면 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독자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후
1) 우편 또는 2) 홈페이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후 사진파일첨부/또는직접가제)로 접수하세요.

보내는 방법은 좌측 페이지 하단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응모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굿모닝인천’ 10월호 독자 설문 당첨자입니다.

서훈(남구 석정로), 서원호(중구 선화동), 윤은정(서울 강남구), 정호철(부평구 부평4동), 허윤아(부천시 강서구), 윤혜정(경기도 광명시), 조광진(부산시 사하), 정정복(부평구 굴포로), 서명수(중구 도원로), 홍미주(계양구 새벌로), 윤선영(경기도 고양시), 한아름(부평구 일신로), 김유리(경상북도 안동시), 장윤서(연수구 송도동), 김병식(남동구 인주대로)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 안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가입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입대상 :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

대상주택 :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중신 지급 방식, 정액형)] (2017년 2월 1일 기준)

| 연령 \ 주택 가격 | 2억 원 | 3억 원 | 5억 원 |
|------------|-------|--------|--------|
| 60세 | 41만 원 | 62만 원 | 104만 원 |
| 70세 | 61만 원 | 92만 원 | 154만 원 |
| 80세 | 96만 원 | 144만 원 | 240만 원 |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참조 및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 420-2139, 2159

02

2017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는 ‘2017 해양수산 취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11월 7일(화) 오후 1시~5시

장소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제2홀

참가기업 : 70개 내외

행사 구성 : 채용관, 컨설팅관, 해양 수산 홍보관, 부대 행사관 등

문의 : 운영사무국 ☎ 070-7688-3160

03

인천무형문화재 ‘전통문화 주말 무료 체험 교실’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우리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부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 전수교육관 방문자 중 체험 희망자(선착순 4가지 체험 중 택1)

체험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시

체험 장소 : 전수교육관 중앙홀

체험 종목 : 화각 공예, 완초 공예, 목조각 체험, 소금 제작 및 연주 체험,
지화 체험, 단청 체험, 자수 체험 등

체험비 : 무료 (단, 체험인원 제한 : 1종목당 15명 / 1일 기준)

문의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 440-8084 (ilc.incheon.go.kr)

04

나를 알고, 나를 지키는 YP 포스터·UCC 공모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일상에서 접하는 유해 환경을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나를 알고, 나를 지키는 YP 포스터·UCC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접수 기간 : 11월 10일(금)까지

참가 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는 11세~19세 청소년

공모전 주제

- 유해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활을 실천하는 내용

- 유해 환경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감동, 교훈, 재미를 줄 수 있는 내용

-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를 알리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

문의 :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721-2300



05

산림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산림 교육 전문가(유아 숲 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숲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 산림 교육 전문가(유아 숲 지도사)로 직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유아 숲 교육에 관심 있는 자

인원 : 매 학기 40명

접수 : 이메일(wald-edu@hanmail.net) 접수

교육비 : 180만 원

문의 : 사단법인 한국숲교육협회 ☎ 439-8880

07

2017 연수문화원 창작 동아리 기획전 및 발표회

연수문화원에서 ‘2017 연수문화원 창작 동아리 기획전 및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오픈식 : 11월 18일(토) 오후 2시

전시 기간 : 11월 18일(토)~12월 2일(토)

장소 : 연수문화원 어린이미술관(동춘역 이마트 옆)

문의 : 연수문화원 ☎ 821-6229

* 문화학교 발표회 11월 4일(토) 오후 2시 연수문화원 소극장

06

제12회 인천시 물류발전대상 후보자 접수

우리 시는 물류산업분야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천의 글로벌 물류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제12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후보자를 신청받습니다.
인천시 물류발전대상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요건 : 소재지 또는 사업 활동 지역이 인천 관내에 있는 기업체로서
물류 기업의 임직원, 학계 등의 개인 및 단체

접수기간 : 11월 10일(금)까지

시상내역 : 기업 부문과 개인·단체 부문 각각 본상 및 특별상 4개 부문

문의 : 시 향만과 ☎ 440-4842

08

뉴욕 필하모닉 협력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꼬마작곡가’ 2기 발표회

연수문화원에서 뉴욕 필하모닉 협력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꼬마작곡가’ 2기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미래 음악 꿈나무들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11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연수문화원 소극장(동춘역 이마트 옆)

관람 요금 : 무료

문의 : 연수문화원 ☎ 821-6229

인천시 웹사이트 회원 유지 재동의 안내

인천시 웹사이트(www.incheon.go.kr)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6-21호)’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 정보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인천광역시 웹사이트의 회원정보 보유에 대한 재동의 인증을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대상 : 회원가입(또는 회원정보 보유 재동의) 후 2년이 경과된 회원

신청 내용 : 회원정보 보유를 위한 재동의 인증

신청 방법 : 로그인 후 재동의 하기 클릭

문의 : 시 정보화담당관실 ☎ 440-2348

※ 미동의 시 6개월간 휴면전환 후 계정이 삭제되며 흙씨(마일리지), 온라인 예약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정보 등도 삭제 처리됩니다.

문학시어터 연극 ‘흑백다방’ 상연

문학시어터는 연극 ‘흑백다방’을 상연합니다.
깊어 가는 가을, 예술성과 대중성을 검증 받은 수준 높은 연극과 함께 계절의 정취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11월 24일(금) 오후 3시/6시·25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 인천문학경기장 문학시어터

관람료 : 일반 1만5천 원, 학생 8천 원

예매 : 엔티켓(☎ 1588-2341, www.enticket.com)

문의 : 문학시어터 ☎ 433-3777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CI 창작 공모전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CI 창작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 주제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센터’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상징화

공모 분야 : CI 기본 도안 및 구성안

응모 자격 : 개인 및 단체(대학생,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의 참여 환영)

접수 기간 : 11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

시상 내역

- 당선작(1명/팀) 상금 500만 원

- 우수작(2명/팀) 상금 각 100만 원

- 입선작(10명/팀) 상금 각 10만 원(문화상품권)

응모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문의 : 인천여성가족재단 ☎ 517-1756, www.ifwf.or.kr



‘2017 외교부-인천광역시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 개최 및 참가 신청

우리 시는 2015년부터 국제기구 및 MICE 분야 진출 희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해당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 11월 17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참가 대상 및 규모

- 국제기구 및 MICE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1천여 명)

- 참가 기관(50부스) : 국내 소재 국제기구(유엔 및 정부간 기구, 준정부기구, 국제NGO 등), 호텔, PCO(국제회의기획업체), PEO(전시기획업체), 여행사, MICE서비스 업체, 교육기관 등

주요 프로그램 : 국제기구 및 MICE 분야 진로·취업 상담 및 홍보 부스 운영, 국제기구 분야별 심층 세션, 글로벌 MICE 아카데미

문의

- 국제기구 분야 : 외교부(국제기구 인사센터 ☎ 02-2100-8421, 7232 유엔과/ UNrecruit@mofa.go.kr)

- MICE 분야 : 인천관광공사(컨벤션뷰로 ☎ 210-1055, cvb@into.or.kr)



국립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립인천대학교는 경영대학원 석사과정과 최고경영자 과정 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 경영학석사(MBA) 과정 | 최고경영자(CEO) 과정 |
|---------------|--|--|
| 모집 인원 | 40명 | 40명 |
| 수업 연한 | 2년(4학기) 매주 화,수요일 오후 6시 30분~ | 16주 과정(4월~10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10분 |
|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11월 24일까지 | 11월 1일~모집 정원 완료 시까지 |
| 전형 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 |
| 면접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목) 오후 7시 (14호관 102호)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 합격자 발표 | 12월 15일(금)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MBA 과정) (business,inu.ac.kr) | 12월 15일(금)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최고경영자 과정) (business,inu.ac.kr) |

문의 : 국립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행정실 ☎ 835-8501~2

어린이 공연 페스티벌

남구학산문화원에서 어린이 공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11월 9일(목)~11일(토)

장소 : 학산소극장 4층

신청 방법 : 전화 및 방문

관람료 : 1만 원(남구 주민 및 단체 50% 할인, 아빠 무료)

문의 : 남구학산문화원 ☎ 866-3994

제4회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트 콘서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부부상담, 가족상담을 진행하며 부부캠프와 가족치료, 가족캠프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회복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위로와 기운을 북돋아 주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제4회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트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 : 12월 5일(화)

장소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내용

- 1부 : 국악 공연(김지후, 우리음 lab 연구소)

- 2부 : 현대무용(박민영)/현악 연주(바이올린 김승희, 피아노 이호정)

문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865-1120



‘인천, 담다’ 제9회 고제민 개인전



비탈진 수도국산(위)
백령도-두무진포구(아래)

일시 : 11월 23일(목)~12월 4일(월) opening 11월 23일(목) 오후 5시 30분
장소 : 한중문화관(중구 제물량로 238)
문의 : ☎ 760-7860~6

고제민 작가는 지난 몇 해 동안 지역 인터넷신문 ‘인천in’과 시정홍보지 ‘굿모닝인천’에 연재한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연다. 작가는 나이가 들어 고향 인천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늦게나마 지역 정체성을 찾는 일을 속 명처럼 받아들이며 꾸준히 작업을 해 왔다. 먼 바다에 있는 백령도와 굴업도, 바다에서 물으로 들어오는 북성포구와 소래포구, 옛날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갯이부리 마을, 망각 속으로 흩어져가는 송현동 골목,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개항장 등 인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을 두루 담으며 소멸, 향수, 희망을 작업했다. 작가는 인천(1960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붓을 쥐었다. 1979년 서울로 나가 서울예술고등학교, 1984년 덕성여자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바로 인천영화관광경영고 미술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다. 2011년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색을 벗다’로 첫 개인전을 열고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고향 인천을 단순한 외면적 풍경이 아닌 시간의 흔적과 중의적 정서를 반영한 풍경과 삶의 흔적을, 특히 인천 포구와 바다 작업에서는 강렬한 내면적 정서를 담고자했다. 이렇게 인천을 담은 그림과 이야기는 ‘인천, 바다로 향하는 바람’이란 타이틀로 곧 출판 할 예정이다.

귀뚜라미 우는 밤
생각나는 섬, 교동도

글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홍보팀

알락귀뚜라미(*Loxoblemmus arietulus*)
사진 출처 : © 국립생물자원관 김태우



늦은 밤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억 저편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귀뚜라미가 울어대는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일까? ‘귀뚜라미 우는 밤’이란 동요에서는 떠나간 동무를 그리워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듣는 귀뚜라미 소리 중 하나가 ‘알락귀뚜라미’ 울음소리다. 알락귀뚜라미는 공원 잔디밭이나 논밭 주변 등에서 11월까지 볼 수 있는데, 울음소리가 방울 소리처럼 맑은 것이 특징이다. 몸길이는 13~16mm, 광택이 나는 흑갈색 몸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흩어져 있다. 앞가슴 등판에 흐린 반점이 불규칙하게 있고, 더듬이는 몸길이보다 길다. 암컷을 유혹하는 수컷만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오른쪽 앞날개를 왼쪽 앞날개 위에 포개 비비면서 마찰음을 낸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불러일으키는 추억과 닮은 곳이 인천에 있다. 바로 6·25 전쟁 때 북한 연백 지역 피난민들이 내려와 지금껏 돌아가지 못하고 마을을 이룬 강화군 ‘교동도’다. 고향을 지척에 둔 실향민의 마음 때문인지 교동도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듯하다. 마치 1960~70년대로 돌아간 듯한 대룡시장의 모습은 곳곳이 정겹고, 구석구석 그려진 벽화를 보면 미소가 번진다. 고려시대에 세워져 국내에서 가장 먼저 공자를 모신 교동향교, 교동도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화개산과 화개산성에서 역사를 느낄 수도 있다.

평화와 통일의 섬, 교동도. 실향민들이 세운 망향대와 교동도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연백평야는 손에 잡힐 듯 가깝게만 느껴진다. 아직 돌아갈 순 없지만, 고향에서 들었던 귀뚜라미 소리는 지금도 변함없다. 고려시대 궁녀들은 작은 금룽(새나 그 밖의 동물을 가두어 기르는 장)에 귀뚜라미를 넣고 그 소리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랬다고 하니, 자유롭게 남과 북을 오가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실향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를 바랄 뿐. 쌀쌀해진 날씨, 옛 추억에 잠겨 가족의 따스함을 느끼게 해줄 강화 교동도 주말 나들이는 어떨까.

기록과 보존 의미



글 박현주
(화도진도서관 독서문화과장)

화도진도서관이 인천의 근대 개항기 자료를 비롯한 향토 자료를 수집해 온 지도 벌써 17년이 흘렀다. 물론 개관 당시에도 향토 자료를 수집했지만, 그 본격적인 시작은 200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특화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1억 원의 자료 구입비를 지원 받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개관한 화도진도서관과 인천일보의 창간이 비슷한 시기였으니, 내년이면 벌써 30년이 된다. 화도진도서관에는 인천일보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제본된 신문을 소장하고 있다. 인천일보뿐만 아니라, 기호일보와 경인일보, 폐간된 인천신문까지 모두 소장하고 있음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며 종이 책이나 종이 신문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무용론을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만약 종이 자료를 소홀히 여겨 보존 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폐기했다더라면, 현재 종이 신문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내게 신문에 대한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발행됐던 ‘조선신보’와 ‘조선신문’이었다. 발행 기록만 있을 뿐 신문의 실체를 만나기 어려웠던 어느 날, 우리나라 최초의 도선사 유항렬 선생댁을 보수 공사 중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일본식 미닫이문 안쪽에 두텁게 배지로 쓰인

조선신보 원본들을 발견하고 그 궁금증과 호기심이 더 커졌다, 수소문 끝에 ‘조선신보’와 ‘조선신문’을 소장한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 문의해 화도진도서관에서 마이크로 필름을 구입했고, 디지털화를 거쳐 영인본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후 신문의 가치를 알아 본 연구자와 연구 단체에 디지털화된 신문을 제공했고, 현재도 근대 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잘 활용되고 있다. 지역 신문은 그 지역의 일일 기록지다.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지로서 신문의 역할은 중요하다.

화도진도서관에는 신문 외에도 많은 종류의 도서와 비도서 향토 자료들이 수집·보존되고 있다. 1940년 일본인들이 발행했던 ‘월간 인천’이란 잡지 속엔 경인 운하 건설 관련 토론회, 월미관광 특구 관련 대담 등도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역사 기록과 이야기가 책과 신문, 사진과 엽서, 필름 속에 담겨 있다. 수집된 개항기 자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일본인들의 기록에 대한 습성의 대단함이다. 역사와 기록을 대하는 우리들의 현재를 반성하게 한다. 지금도 화도진도서관은 과거 기록의 수집·보존과 더불어 현재의 ‘무엇을’ ‘어떻게’ 보존해 갈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시대의 상황을 똑바로 이해하고, 포착하는 데 있어 조정에서 적은 공식 기록이라는 정사(正史)만으로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음을 실감케 된다. 그래서 정사가 아닌 야사(野史)를 뒤지게 되고, 그 야사로 정사를 조명시키고 보유(補遺)하면 상황의 진실이 떠오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야사의 기록은 아무리 값지게 평가한다 해도 지나치다는 법이 없을 것이다.” - 신태범 박사의 ‘인천 한세기’ 서문(부분 발췌)

개항 100년이 되던 해 출간된 신태범 박사의 책이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규태 선생이 쓰신 서문을 보면,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유를 명확히 알려준다. 역사 연구자는 아니지만, ‘인천 한세기’ 초판본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고 종종 되짚게 된다.



아무튼, 인천山

추색(秋色) 절정. 단풍놀이 한다고 태산준령 찾아 집 나서면 고생 시작이다. 바닷바람 맞은 인천의 산들은 색이 더 또렷하고 진하다. 멀리 갈 것 없다, 우리 집 뒤가 바로 가을이다.인천에는 87개의 산이 있다.

월미산(108m), 응봉산(66m), 금산(167m), 석화산(148m), 백운산(253m), 왕산(141m), 호룡곡산(244m), 국사봉(237m·무의동), 문학산(217m), 연경산(177m), 노적산(118m), 승학산(123m), 수봉산(105m), 청량산(173m), 관모산(161m), 상아산(151m), 거마산(210m), 오봉산(106m), 거머리산(126m), 만수산(202m·남동구), 만월산(187m), 소래산(300m), 함봉산(106m), 장수산(128m), 원적산(165m), 천마산(276m), 계양산(395m), 형제봉(115m), 고성산(123m), 가현산(215m), 북망산(101m), 험봉산(91m), 꽃메산(95m), 할메산(105m), 계목산(80m), 골막산(74m), 만수산(113m·서구), 황화산(120m), 묘지산(79m), 고산(123m), 남산(223m), 고려산(436m), 당산(74m·강화읍 용정리), 로적산(180m), 덕정산(320m), 대모산(84m), 정족산(220m), 길상산(336m), 마니산(469m), 초피산(253m), 상봉산(255m), 진강산(441m), 퇴모산(339m), 계암산(180m), 혈구산(466m), 국수산(193m), 덕산(190m), 낙조봉(343m), 별립산(416m), 성덕산(167m), 봉천산(291m), 화개산(260m), 봉황산(75m), 수정산(126m), 울두산(89m), 상봉산(316m), 해명산(327m), 상주산(264m), 낙가산(245m), 봉구산(146m), 봉화산(82m), 요옥산(102m), 구봉산(178m), 국사봉(150m·옹진군 북도면), 용기원산(136m), 삼각산(343m), 국수봉(314m), 비조봉(292m), 연평산(128m), 덕물산(139m), 당산(220m·덕적면 올도리), 부아산(159m), 속리산(188m), 당산(93m·자월면 승봉리), 국사봉(166m·자월면 자월리), 양로봉(156m), 국사봉(128m·영흥면 내리).

- 연수구 동춘동 (청량산)